

# 가을맞은 법주사, 대중들 추억 속으로

## 사진전·7080콘서트 등 개최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현조)가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문을 열고 대중들에게 나아가고 있다.

법주사 이번 가을 행사의 메인 테마는 '7080세대'. 그 시절 소풍과 수학, 신혼여행이었던 법주사에서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먼저 법주사는 최고의 여행지였던 법주사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법주사 추억여행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하려면 법주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사진과 사연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해 10월 25일까지 우편과 이메일(spning@beopju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9월 15~16일 법주사에서 열린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법주사가 가을 산문을 열고 대중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불교체험 부스 상시 운영

### 지역민 등 위한 일요법회

### 다문화가정 템플스테이도

법주사는 심사를 거쳐 법주사 주지상, 보은군수상 등을 수여하며, 참가자 정원을 템플스테이에 초대한다.

이와 함께 법주사는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 법주사 팔상전 특설무대에서 '7080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박강성 등 7080가수들이 그 시절 인기가요들을 대중들에게 선사 할 예정이다.

또한, 법주사는 10월과 11월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불교문화체험부스도 상시 운영한다. 부스는 보은, 성주 지역 포교사들이 사경, 인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펼칠 예정이다.

법주사 연수국장 보관 스님은 "법주사는 70, 80년

대 최고의 관광지이자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라며 "그 시절 산사에서 보낸 추억을 공유하고,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민을 위한 상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9월 15, 16일에는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2~13일, 26~27일에도 연이어 개최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연극, 미술 심리 상담, 불교 문화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10월 29일부터 30일에는 유명 골퍼 양용은 선수를 초청해 보은, 성주, 대천 지역 골프 꿈나무를 위한 템플스테이도 연다.

또한 법주사는 새로운 포교 모델로 '숲 속의 일요법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도심 사찰 위주로 진행되

는 일요법회를 천년 고찰에서도 시도하겠다는 주지 스님의 의지가 담겨있다. 10월 21일 처음 예정인 '숲 속의 일요법회'는 숲 속 트래킹, 명상, 법문 등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법주사는 9월 22일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한 '제1회 충북민속축제 한마당'을 펼쳤으며, 9월 25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VIP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채식위주의 46가지의 사찰음식 등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행사에 대해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가을 행사를 통해 지역과 국민들에게 추억과 낭만, 문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법주사의 문화 포교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지역소식

### 선우와 함께하는 청년구법순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는 9월 15일 부산 법어사 설립전에서 선우들과 함께하는 53청년

구법순례에 임재했다. 53청년구법순례는 21세기를 여는 청년불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행에 근간하는 청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경북·포항시 불자의원 격려법회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11일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회에서 활동하는 불자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역 스님들을 비롯한 신도회,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 정각회는 2011년 8월 포항지역 시·도 의원들 중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 자리는 회원들의 승진 등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포항시의회 의장에 부회장이 이철구 시의원이 선출됐고, 정각회장 장두욱 도의원이 경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장 선임되는 등 회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포항 보경사 교정불자회 창립

포항 보경사(주지 효용)는 9월 13일 포항교도소에서 불자교도관 30여 명과 지역 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불자회 '불심회'를 창립했다.

보경사 주지 효용 스님은 "포항교도소 교정직원들의 신형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 이번 불자회 창립을 지원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경사는 지금까지 매월 한차례 포항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위문법회를 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동아대 법등회 1주년 기념법회

동아대 법등회는 9월 16일 부산 정동사 구보타원에서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구례 칠부사 서봉 스님이 법사로 나

섰다. 박재현 법등회 신임회장은 "법등회는 불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겠다"며 포교활동을 열심히하는 전법사로 서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제12회 갯바위축제 성료

경산 갯바위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최동주)는 14일 경산 갯바위 공영주차장에서 경산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과 정병윤 경산시 부시장,

최동주 갯바위축제 추진위원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경산시립합창단 축하공연과 선무도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세계 유명 문인들 '삼국유사'에 취하다

### '국제 펜 대회' 참가자 인각사서 불교문화 체험

'제78차 국제 펜 대회'에 참가한 세계 유명문인들이 인각사를 찾아 <삼국유사>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사찰인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는 9월 13일 인근 일연공원에서 국제 펜 대회에 참가한 세계 114개국 250여 명의 문인들과 함께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국유사의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이 공연됐으며 범고시연과 외출타기 등 불교와 민속놀이가 선보였다.

이날 주지 도권 스님은 존 톨스톤 소울 국제 펜 클럽 회장에게 삼국유사 영인본을 선물로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누각 앞에 설치했던 계단의 부적질한 장식이 지금은 단아한 모습으로 개선됐다. 사진은 경남의 ≪사찰

## 건축 공간의 계층적 질서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이나 계급, 가문의 존수 또는 연령에 따라 위와 아래가 엄격히 구분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조화로운 질서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계층적 질서의 구현은 사회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건축공간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사찰에서 주불전의 공간규모를 다른 건물에 비해서 크게 한다든지, 주불전을 가장 높은 곳 혹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짓는다든지, 주불전의 장식성을 다른 불전과 차별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사찰에서 계층적 질서를 구현하는 방법이었다.

최근에 들어 사찰에서 이러한 계층적 질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물을 얹거나, 부불전이나 부속건물을 주불전보다 크게 짓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찰에서 지켜온 계층적 질서가 교란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찰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물은 없겠지만, 그 건물에 어떤 불보살을 모시는지, 그 건물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그 건물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조형법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찰마다 많은 신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과는 다른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건축공법과 기술이 발전되고, 재료가 달라지면서 건물 규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장식효과도 이전과는 달리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공간 질서가 무너지고, 경관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규모나 양식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착된 계단과 같이 작은 요소마저도 장식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동맞은 경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불전이 아닌 건물에 설치한 계단의 난간을 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범수에 지나치게 강조된 범륜을 두기도 하여 그 건물 성격에 오히려 방해한다.

한국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경관적 정체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층적 질서를 존중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질서자체가 훼손되고 오염된다면 우리 사찰에서 더 이상 한국성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